

- 주요 뉴스: 미국 4월 근월 PCE 물가, 제한적 둔화 예상. 통화정책 전망 영향 등에 관심
 - 미국 재무장관, 예상보다 높은 금리 지속될 가능성.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중요
 - ECB 주요 인사, 과도한 금리인하에는 신중함 요구. 임금상승 우려는 불필요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 결정 시 국채금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님을 시사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기업실적 등이 영향
 - 주가 강보합[+0.03%],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양호한 기업실적 상충하며 강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수입차 관세인상 검토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4월 S&P 글로벌 종합 PMI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관측 후퇴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7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08% 상승, 한국 CDS 상승

		5/24일	5/17일	전주말대비			5/24일	5/1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304.7	5,303.3	+0.03%	국채 금리 10y	미국	4.47%	4.42%	+5bp
	유럽	520.57	522.94	-0.45%		독일	2.58%	2.52%	+7bp
	중국	3,088.9	3,154.0	-2.07%		영국	4.26%	4.13%	+13bp
	일본	38,646	38,787	-0.36%		한국	35bp	34bp	+1bp
	한국	2,687.6	2,724.6	-1.36%	CDS 5y	중국	61bp	60bp	+1bp
						EMBI+	335bp	324bp	+11bp
환율	달러지수	104.72	104.45	+0.27%	위험 지표	VIX	11.93	11.99	-0.50%
	유로화	1.0847	1.0869	-0.20%		WTI유	77.72	80.06	-2.92%
	엔화	156.99	155.65	-0.85%	원자재	구리	477.9	505.7	-5.51%
	위안화	7.2436	7.2243	-0.27%		금	2,333.8	2,415.2	-3.37%
	원화	1,369.5	1,354.9	-1.0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4월 근원 PCE 물가, 제한적 둔화 예상. 통화정책 전망 영향 등에 관심

- 5/31일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가 발표. 시장에서는 4월 근원 PCE 물가의 월간 및 연간 상승률이 0.2~0.3%, 2.8%로 3월(각각 0.3%, 2.8%)에 비해 소폭 둔화 및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헤드라인 PCE 물가의 경우 0.3%, 2.7%를 나타내 전월(각각 0.3%, 2.7%)과 동일한 수준 기록할 전망
-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면, 중단되었던 인플레이션 완화가 재개되었다는 평가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 다만 인플레이션 완화가 매우 제한적이면서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달성 궤도에 진입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
- 4월 근원 PCE 물가 결과를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책무 달성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 그러나 금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완화는 전반적으로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Bloomberg Economics)
- 경기 냉각이 진행 중이나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연준 이상으로 경제 지표를 투자 결정에 반영(LPL Financial).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견조하고, 연준 인사들이 최근의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금리인하는 연내 1회에 그칠 전망(BofA)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예상보다 높은 금리 지속될 가능성.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중요

- 옐런 장관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정부가 부채를 통제하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 특히 재정적자와 이자비용을 제어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첨언

■ G7 재무장관회의,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중국의 정책을 우려

- 상호 협동과 균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동시에 중국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여 여타 국가의 노동자와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발표. 아울러 계속해서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

■ 유명 투자가 빌 그로스,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는 국채시장에 부정적

- PIMCO의 공동 설립자 빌 그로스는 트럼프 후보가 금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감세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채가격이 약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ECB 주요 인사, 과도한 금리인하에는 신중함 요구. 임금상승 우려는 불필요

- 슈나벨 이사는 역내 인플레이션 완화가 다소 지체될 수 있기에 금리인하를 지나치게 빨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도 6월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2번째 금리인하는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 피력
- 한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인 센테노 위원은 최근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큰 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 오히려 최근 실질임금의 상승은 2%의 인플레이션(연율)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

■ 이스라엘 군대,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 지속. 하마스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반격

-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전쟁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라파 지역 공격을 지속. 다만 최근의 공격은 전면전 형태는 아닌 것으로 평가. 한편 하마스는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10여발의 로켓을 발사. 그러나 이로 인한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도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 결정 시 국채금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님을 시사

- 우에다 총재는 장기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 이번 발언은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결정 시 국채금리를 최우선 요인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
- 한편 외환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간다 재무관은 엔화 환율 변동이 과도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메모리얼 데이 휴장, ECB 치폴로네 이사 및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 독일 5월 Ifo 경기기대지수,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양적긴축 속도조절과 재무부의 국채 환매, 국채가격에 긍정적 - 블룸버그

(Some Good News for Bond Traders Stuck in Fed Waiting Game)

- 양호한 경제 성장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하 지연 전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채 투자자들은 향후 당국의 긍정적 지원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먼저 재무부는 이번 주 200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매매가 어려운 국채의 일부를 환매할 예정. 또한 연준은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출 방침
- 주요 국채금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5월초 이후 하락세 지속. 아울러 이와 같은 국채환매와 양적긴축의 속도 조절은 채권시장의 안정 뿐 아니라 은행 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유동성 지원에도 기여할 전망

■ 미국의 경기둔화, 투자적격등급 회사채의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More US high-grade borrowers at risk of downgrade as economy slows)

- 최근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으로 '부정적 관찰대상' 또는 '부정적 전망'의 평가를 받아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가운데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회사채 비중이 증가.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5.7%)이지만 연초(2.9%)에 비해 두 배 상승. 이러한 현상은 예상보다 둔화된 경제 성장 등에 기인
-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경기침체 회피 등으로 대규모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가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다시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한 결과라고 평가. 한편 금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양호한 회사채 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신규 회사채 공급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흡수될 수 있음을 의미

■ 미국과 일본의 금리격차 축소, 엔화의 강세 전환을 유도할 소지 - Reuters

(Japan's new widow-maker trade may have shorter life)

- 수년 동안 투자자들은 장기 금리하락 여건에서 일본 국채에 대한 공매도를 실시해 손실을 기록. 한편 지난 3년 간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50% 하락해 엔화 매수 투자 또한 유사한 상황
- 다만 최근에는 엔화 반등 가능성이 제기. 일본은행의 7월 금리인상 및 연준의 연내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엔화 약세 요인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또한 엔저로 인한 일본의 수출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촉진, 일본은행의 국내 채권 보유 확대도 강세 가능성을 뒷받침

■ **유럽의 빠른 인구 감소세, 재정과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 - Financial Times**

(Has Europe already reached its demographic tipping point?)

- EU의 출산율이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26년 이전에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 EU는 정부주도의 출산 장려에 나섰지만, 효과가 제한적. 아울러 반이민정책의 정치세력 부상도 인구 감소를 촉진시킬 우려
- 역내 1인당 GDP는 경제활동인구 축소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Oxford Economics). 독일 정부도 노동력 부족을 성장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한 가운데, 유럽은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압박에 직면

■ **미국의 큰 정부 지향 및 재정악화, 자본주의의 신뢰성을 훼손 - Financial Times**

(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

■ **미국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후보보다 기업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정책 추진 - 블룸버그**

(Biden Is the Best President That Business Can Hope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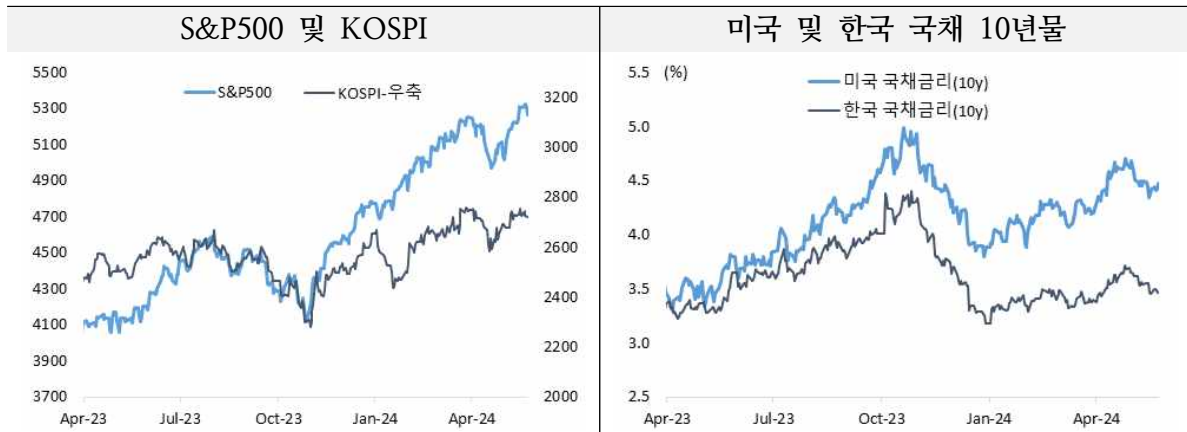
■ **캐리 트레이드 증가 전망, 제한적 금리인하에 따른 변동성 감소 기대가 원인 - 블룸버그**

(Carry Trade Is All the Rage Across Global Bond and FX Markets)

■ **ECB의 6월 금리인하 전망, 5월 소비자물가의 상승 예상에도 유효 - 블룸버그**

(A Euro-Zone Inflation Hiccup Is Unlikely to Thwart ECB Rate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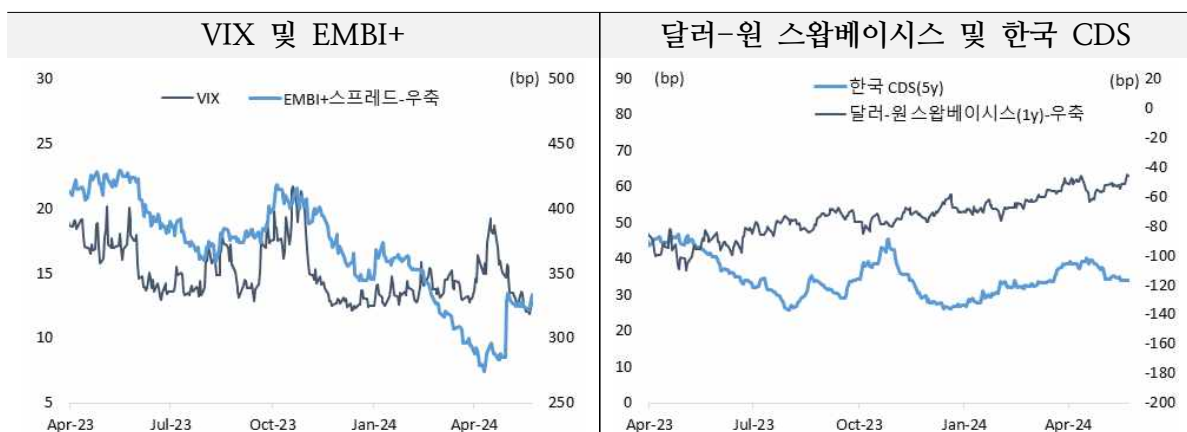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